



III-1 고대~고려 시대의 문학 [2] 제망매가 모의 평가 1회 정답 및 해설



정답 및 해설

1 ③ 2 ④ 3 ① 4 ② 5 ②

1

| 정답 해설 | 이 글은 향찰로 쓰였는데, 중국의 한자로 표기하면서도 우리말의 어순대로 읽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① 이 글은 통일 신라 시대의 승려 월명사가 지은 10구체 향가이다.
- ② ‘바람’은 가혹한 운명, ‘넙’은 인간, ‘ 가지’는 한 부모 혹은 같은 핏줄 등을 의미하므로 알맞은 설명이다.
- ④ 낙구의 감탄사인 ‘아야’는 시조의 종장의 첫 세 글자에서 주로 나오는 감탄사에 영향을 주었다.
- ⑤ ‘4구+4구+2구’의 3단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, 이는 시조의 3장체 형식(‘초장+중장+종장’)에 영향을 주었다.

2

| 정답 해설 | 화자는 1~4구에서 시적 대상인 누이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한다. 그리고 5~8구에서는 죽음 때문에 무상함을 느끼며 허무해한다. 마지막 9~10구에서는 불교적 믿음을 통해 시적 대상과의 재회를 다짐하며,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의지적 태도를 보인다.

3

| 정답 해설 | ㉠은 시적 대상인 죽은 누이이고, ㉡는 화자이자 작가 자신인 월명사로 볼 수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② ㉡은 화자이면서 승려인 작가 자신으로 볼 수 있으나 ㉠은 절대자가 아니라 죽은 누이이다.
- ④ ㉠은 추모의 대상이고 ㉡은 ㉠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화자이다.
- ⑤ ㉡을 현실적인 자아로 볼 수 있지만 ㉠은 이상적인

자아가 아니다.

4

| 정답 해설 | ㉢는 ‘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/ 이에 저에 떨어질 것처럼, / 한 가지에 나고 / 가는 곳 모르온저.’라고 해석할 수 있다. 이는 ‘젊은 나이에 죽은 시적 대상(누이)의 덧없는 삶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① 시적 대상 외에도 죽은 사람이 많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.
- ③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.
- ④ 가을바람에 잎이 떨어지는 자연 현상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이 비유적 의미는 아니다.
- ⑤ 시적 대상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, 자신의 삶이 가을까지 이어지기를 바랐는지는 알 수 없다.

5

| 정답 해설 | 이 글에는 시적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, ㉡는 낙화를 통한 슬픔과 생명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을 뿐이므로 거리가 멀다.

| 오답 피하기 |

- ① 맨발 벗고 울면서 먼 들길로 가버린 ‘애기’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므로 이 글의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가깝다.
- ③ 산새처럼 날아간 ‘너’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므로 이 글의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가깝다.
- ④ 부채한 ‘순이’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므로 이 글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가깝다.
- ⑤ ‘하직’한 시적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므로 이 글의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가깝다.